

TRANS- HUMANITIES

**Title : 다윈주의와 토머스 하디의 시: 다양성, 유기체론의 성장변화,
반인간중심주의를 중심으로**

**Darwinism and Thomas Hardy's Poetry: Centering on
Variabilities, Growth, and Change as an Organic Form,
and Anti-Anthropocentric View of the Universe**

Author(s) : 윤명옥 (YOON Myung-Ok)

Source : *Trans-Humanities*, Vol. 7 No. 2 (2014), pp. 149-180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다윈주의와 토머스 하디의 시: 다양성, 유기체론의 성장변화, 반인간중심주의를 중심으로

윤명옥 (인천대학교)

I. 들어가며: 빅토리아 중기, 다윈, 하디의 네트워크

영국은 빅토리아 중기에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등에서 이루어진 많은 과학적인 발견들로 인해 기존의 신앙과 시대적 사조에 큰 반항을 일으키며 혼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혼란의 중심에는 토머스 헉슬리(Thomas Henry Huxley)¹에 의해 대중화된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이론이 있었는데, 그의 위대한 저작인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1859)은 당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종교적, 사상적,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고 당대의 사회, 종교, 철학 등에 포진해 있던 기존의 관념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이는 곧 다윈의 시대에는 옛날 사고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음을 역설적으로 암시해 준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고방식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믿음이나 신화 같은 것이었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잔재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사고방식이 도래

1. 헉슬리(Thomas Henry Huxley, 1854-1921)는 생물학, 지질학, 생리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했으며, '다윈의 불독'(Darwin's Bulldog)으로 불릴 만큼 철저히 진화론을 옹호한 과학자였다.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닌 교육가이자 사상가로 과학의 대중화, 과학 교육의 발전, 교회 권위에 맞선 과학의 위상 정립 등을 위해 그에 관한 대중 강연을 많이 했으며 글도 많이 발표했다. 그는 또한 진화론 이후 더욱 첨예해진 종교와 과학 간의 논쟁에서 종교의 문제까지 과학적인 접근을 주장하며 과학의 투사가 되었다.

할 변화의 시기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변화의 시기에 탄생한 다윈의 학설은 생물진화에 관한 자연도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나가는데 내적, 외적인 원인에 의해 변이가 일어나면서 같은 종류에서 조금씩 다른 종자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존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변이를 보이는 개체가 자연계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변이는 대부분 유전되며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도태됨으로써 작은 변이가 누적되어 새로운 성질, 말하자면 보다 고도의 적응하는 성질을 가진 생물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종(種), 속(屬) 등으로 분화된다고 한다. 이런 진화론이 다윈주의의 주요 논점인데,² 그것은 변이와 유전의 법칙, 연속적인 작은 변이와 질적인 변화의 관계, 생존 경쟁의 역할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비판과 검토를 요한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토대를 지닌 다윈주의는 하나의 사상적 조류로 통칭되면서 그 사상적, 문화적 영향력이 곧 지대해졌다. 다윈의 글은 당대 작가들의 상상력과 이야기의 구성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에게 영향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연철학과 교양소설(Bildungsroman)³은 물론 동화, 민담, 신화 속에 깃든 지적인 관심은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더욱 깊어졌는데 그 방법론은 진화론적인 논증에 힘입은 바가 컸다. 게다가 19세기 유럽 문화의 지적인 이념은 종합, 통합, 혹은 통섭이라는 관념이었는데, 이것은 관련이 먼 학문들 사이에서도 유사성을 찾게 하는 보다 폭넓은 관점을 강조하면서 그 유사성에 대해 형태론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이와 아울러 그 당시에는 유기체에 내재해 있는

-
2. 다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화론과 다윈주의를 동일시하는데 분노하기도 한다. 다양한 새로운 동식물의 종들이 순전히 유전적 계승이라는 자연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진화의 학설은 흔히 '다윈주의'라는 용어로 불리지만, 원래의 이 학설은 다윈 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다윈주의가 원래의 진화론보다 조잡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인물의 형성과정을 다룬 19세기 독일 문학의 한 장르를 가리킨다.

관계의 개념이 또 다른 중요한 관념으로 성행하게 되었는데, 이런 점은 글쓰기에서 한 분야에 다른 분야를 접목시키도록 했다. 예를 들면 경제학에 예술, 역사에 인종 이론, 인문학에 과학 이론의 수용과 같은 탈경계적인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 시대에 이렇게 탈경계적인 글쓰기를 한 대표적인 작가로 토머스 하디(Thomas Hardy, 1840-1928)를 들 수 있다. 그는 소설과 시를 쓰면서 자신의 작품에 당대의 과학적, 철학적, 사상적 조류를 가장 극명하게 반영하면서 인문학과 과학적인 사상의 결합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문학적 열정을 갖고 있었던 하디는 공식적인 교육을 그다지 많이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예술적 소양을 쌓을 수 있었다. 소년시절부터 이웃에 사는 시인 윌리엄 반스(William Barnes)와 함께 공부했으며, 그리스어와 라틴어 공부는 물론, 성경,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그리고 에우리피데스(Andromead de Euripides), 호레이스(Horace Quintus Horatius Flaccus), 루크레티우스(Litius Lucretius Carus) 등을 비롯한 많은 고전 작가들에게 몰두하여 그들의 작품을 탐독했다. 또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숭배했으며,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는 아놀드(Matthew Arnold), 카알라일(Thomas Carlyle), 밀, 스펜서, 콩트와 같은 사상가들의 작품도 많이 읽었다. 염세주의에 관하여 카로(Elme Marie Caro), 루이스(David Lewis) 등의 작품을 읽고, 후에는 쇼펜하우어와 하트만(Eduard von Hartman) 등을 만나기도 했다. “1915년 7월에는 로열 앨버트 기념 박물관(Royal Albert Memorial Museum)을 방문하여 쥐라기 후기의 화석 조 등을 관찰하며 과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Bailey 345). 23세의 나이에 「현대 건축에 있어 채색 벽돌 및 테라코타의 적용에 관해서」(“On the Application of Coloured Bricks and Terra Cotta to Modern Architecture”)라는 논문으로 영국건축협회의 현상 공모에서 은메달을 따게 되면서 건축과 문학을 종합해서 예술 비평가가 되고자 결심하기도 했고, 지나친 독서로 건강을 해쳐 요양을 하기도 했던 하디는 일찍이 문학과

타 학문과의 연계와 통합을 실현해보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 다윈이 과학, 역사, 사료, 인종이론, 심리학, 문학 등 다양하고도 방대한 잡식성 독서와 박물학, 지질학 공부를 통해 그 시대의 사고에 혁명을 가져오고 종래에 기독교가 갖고 있던 절대적인 권위에 위협을 줄 정도의 획기적인 저작을 산출해냈듯이, 하디의 광범위한 독서와 급진적인 시대적 상황은 그로 하여금 쉽게 자신의 문학 속에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함으로써 문학과 과학, 문학과 문화와의 결합을 이루어내도록 했던 것이다.

소설가로서는 빅토리아 시대에 속하지만 시인으로서는 20세기에 속하는 하디는⁴ 만년에 자신에게 중요했던 사상가들로 다윈, 헉슬리, 스펜서(Herbert Spencer), 콩트(Isidore Marie Auguste François Xavier Comte), 흄(David Hume), 밀(John Stuart Mill) 등을 꼽았는데(Weber 246-47), 그는 다윈의 『종의 기원』에 찬사를 보냈으며 다윈이 자신의 작품과 관찰 방식에 늘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했다(F. Hardy 198). 이런 하디 자신의 언급과 더불어 그의 소설과 시 작품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자연스럽게 다윈주의가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에 주목하여, 피터 모튼(Peter Morton), 로저 로빈슨(Roger Robinson), 엘리엇 고스(Elliot B. Ghose), 페리 마이셀(Perry Meisel), 브루스 존슨(Bruce Johnson), 질리언 비어(Gillian Beer)와 같은 여러 비평가들이 다윈이 하디에게 미친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을 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하디가 시인으로서보다는 소설가로서 더 명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그의 소설에 국한시켜 연구했다. 그리고 드디어 존 홈스(John Holmes)가 2009년

4. 하디는 젊어서 소설을 쓰고 말년에 가서 시를 썼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상실감을 단호하고 준열하게 토로한다는 점, 장식성이 제거된 거친 일상어투의 언어와 뒤뜰린 구문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빅토리아 시대의 시들과는 차별된 시를 쓰며 현대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시에서는 현대성을 획득하기 시작한 20세기에 넣어 분류한다. 특히 이미지리스트이자 모더니스트인 파운드(Ezra Pound)는 하디를 현대 시인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가 훌륭한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20편의 소설을 먼저 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그에 대한 결실이라고 했다(Pound 294).

출간된 『다윈의 시인들: 진화 시대의 영미시』(*Darwin's Bards: British and American Poetry in the Age of Evolution*)를 통해 다윈주의의 입장에서 테니슨(Alfred Tennyson), 브라우닝(Robert Browning), 테드 휴즈(Ted Hughes), 톰 건(Thom Gunn) 등의 시인들과 더불어 하디의 시에 대해 연구했다. 하디는 시에 있어서도 소설 못지않은 명성을 얻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필자는 이 점에 착안하여 하디의 시에 나타난 다윈주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홈스가 문화적 역사의 관점에서 주로 하디의 비가와 서정시를 논하고 있는데 비해, 필자는 다양성, 변화와 성장, 반 인간중심, 염세주의, 우연성을 공유하는 다윈주의와 토머스 하디 시의 만남과 그 거처에 깔린 하디의 다윈주의의 인도주의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과 더불어 사상적, 이론적으로 변형된 인문학적 개념에 맞추어 하디의 시에 반영된 다채로운 다윈주의적인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디의 모든 상상력과 문학적 정서와 그 정수가 그의 시 작품에도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II. 다양성

우선 ‘진화’의 용어를 살펴보면, 18세기와 19세기의 개념이 다르다. 18세기에 ‘진화’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개념으로 국한되어, 생물이 알에서 깨어나 자라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거치는 단계들을 의미했다. ‘진화’는 단일한 생명주기를 가리키면서 개별적인 발생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고, 그리하여 진화론은 단일한 생명 주기만으로도 어떤 경험의 실체를 이해하게 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하지만 1830년대에 들어서자 ‘진화’라는 말은 처음으로 개체가 아닌 종의 발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계통발생(phylogeny)이라는 생물학적인 용어가 바로 그런 의미였는데, 그 이후에는 개체발생(ontogeny)이라는 말도 사용됨으

로써, 이 두 용어가 ‘진화’라는 하나의 용어로 포괄적으로 사용되면서 이후 백 년 동안 문학에서 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 혼란은 다양한 형태와 의미의 문학과 언어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초래했는데, 이는 ‘진화’에 대한 개념의 다의성을 말해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윈의 진화론을 인문학적으로 명쾌하게 분석한 질리언 비어는 다윈 이론의 특성을 『다윈의 플롯: 다윈, 조지 엘리엇, 19세기 소설에 나타난 진화론적 서술』(*Darwin's Plot: Evolutionary Narrative in Darwin, George Eliot and Nineteenth-Century Fiction*)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윈의 이론은 하나의 의미로 환원되거나 단일한 유형만을 낳지 않는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의적이다. 진화론은 데카르트식 명료성이나 통합성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종의 기원』에서 보이는 다윈의 논증 방식과 생성적인 은유법은 확산과 연장으로 나아간다”(7). 비어에 따르면, 다의성, 혹은 다양성은 진화론의 주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윈의 개념에 영향을 받은 하디는 “20세기에 처음으로 사회, 혹은 문화의 본질적인 정신적 특색을 자유로이 표출한”(Langbaum 29) 시인답게 이런 다양성의 개념을 시를 통해 다채롭게 보여준다. 특히 「아주 다양해」(“So Various”)라는 시는 이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는 1연에서부터 12연에 걸쳐 길을 가다가 마주치거나 알고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인간들을 이야기한다. 그 사람들은 야망과 내면의 불덩이에 사로잡혀 전선처럼 팽팽하게 나아가는 흥분한 청년일 수도 있고, 뺨뺨하고 늙은 사람, 환희나 신음을 결코 겪지 못해서 돌덩이처럼 차가운 사람일 수도 있다. 혹은 맑고 깊은 마음속에 굳세고 강건하면서도 부드러운 믿음이 있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거나 달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속이 흰히 보이는 멍청이 같은 사람이거나 확신이 있는 현자(賢者)일 수도 있다. 혹은 진정한 기쁨을 겪어본 적이 없는 슬픈 사람이거나 슬픔을 가졌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즐거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을 느려터지고 모험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또한 일을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으며 영악하고 민첩해서 사업가적인 사람, 출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찌면 상대방이 한 말을 잊거나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깨우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소한 일도 결코 잊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들은 모두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다채로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하디는 이렇게 다채로운 사람들을 장황하게 언급한 후 마지막 연에 이르러 그들이 결국은 한 사람, 바로 자신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자, 그런데 ... 그들의 주안점과 의도가/ 아주 다양한 이 모든 사람들은,/ 기묘한 말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었다네. 그렇다네,/ 그들 모두가 바로 나였다네”(13. 1-5).⁵

하디의 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사물을 “다양성의 관점으로 보는 진화론”(Darwin 93)은 어떤 것을 한 가지 방향으로만 몰고 가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상상력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상상을 통한 역사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화사상은 우리가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 아울러 경험을 이야기로 응축하는 방식을 다양화했다. 그리고 진화론에 포함된 풍부한 모순 요소들은 하나의 경험을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는 은유의 기반이 된다. 진화론은 문학에 있어 신화와 같은 기능을 한 것이며, 은유와 패러다임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원래의 생물학 분야를 넘어 특별한 학문 영역에 자극을 준 것이다. 이에 힘입어 하디 역시 1000 편이 넘는 자신의 방대한 시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그런데 진화론의 개념들은 언어의 일상적인 용법도 변화시켰다. “발생’, ‘세대’, ‘변종’, ‘유전’, ‘개체’, ‘친족’, ‘변이’ 같은 용어들이 그런 것들인데, 심지어 당대에는 매우 과학적이고 전문적이어서 낯설어 보이기조차 하는 ‘돌연변이’나 ‘멸종’ 같은 단어도 일상용어로 편입되기도 했다”(Beer 18). 그리

5. Hardy, Thomas. *Thomas Hardy: The Complete Poems*. Ed. James Gibson. Oxford: Oxford UP, 2002. 이후 토머스 하디의 시 인용은 이 책에 의거, 내주로 연과 행수를 표기하고, 한정된 지면관계상 원문은 생략한다.

고 일상어를 문학 속에 투입시키려는 19세기의 문학은 ‘유전’이나 ‘상속’ 같은 단어들 속에 내재해 있는 논쟁적인 요소들을 되살렸고, 주제로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아도 어휘 속에 응축되어 있고 이야기 속에 혼재되어 있는 미묘한 작용과 반작용 같은 것을 보여주었다. 하디의 시에서도 이런 용어들은 등장한다. 그는 「유전」(“Heredity”), 「변형」(“Transformations”)이라는 시를 썼으며, 많은 시에서 지금은 당연시 여기고 있는 용어들이지만 당대에는 낯설어 보이는 용어들을 거침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다윈의 관심은 과학적인 용어와 일상적인 언어 사이에 의미를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것이었으며 언어의 역사를 언어의 친족과 그를 확산시키는 은유적인 사례 이상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는데, 하디는 그런 점들을 자신의 시를 통해 재현한다. 더욱이 하디는 과학 사상에 힘입은 지구와 우주의 진실에 대한 그 자신과 당대 사람들의 회의를 명백히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과학적인 사실이 과학 용어와 시어의 일치를 통해 문학으로 변용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를 통한 언어의 은유적 확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례로 그는 「권주가」(“Drinking Song”)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가 사라지는 많은 이론들이 당시에는 절대적인 진실 같아 보이지만 곧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서 매 연마다 합창(Chorus)을 통해 그런 사실에 괴로워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라고 노래한다. 이 시의 1연에서 하디는 기원전에 인간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진리들을 보는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Thales)가 나타나 말했는데, 그의 말로 미루어 볼 때 그 당시에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만물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고 한다. 2연에서는 지구가 창공에 굳건히 평평하게 서 있다고 믿었던 시대에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Copernicus)가 나타나 인간은 지구를 따듯하게 비추는 태양 주위를 구르고 있는 공 같은 구체 위를 걷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3연과 4연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지혜도 많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은 지구가 수준 높은 유일한 세계라고 믿고 있었는데, 우주를 아는 자의 입에서 창공에는 무수히 많은 구체가 있다는 소문들이

흘러나오더니 인간의 유일한 터전인 지구가 최고의 구체, 모든 것 중 최상의 세계가 아니라 흔하고 평범한 것이며, 인간들은 아주 오만하지만, 실은 연약한 균중이며 어떤 특별한 운명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 다음, 5연에 이르러 스코틀랜드 철학자 흄(Hume)이 나타나 지구가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괜히 소동을 피울 필요가 없으며, “신의 시계가 삐걱거린다는 것보다는 사람의 눈이 속는다고 믿는 게 낫다”(5. 6-7)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서 6연, 7연, 8연에서는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이 나타나, 인간은 모두 기어 다니는 생물과 같으며 원숭이와 인간은 피를 나눈 형제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영국의 성경학자 체이네 박사(Doctor Cheyne)가 나타나 처녀가 남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며 마리아의 처녀 잉태를 부정했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독일 태생의 유대계 미국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Einstein)이 나타나 상대성 이론을 언급하며 시간도, 공간도, 운동도 없고, 빠른 것도, 늦은 것도 없고, 사각형도, 직선도 없고, 단지 휘어지는 대양 같은 것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니 모든 위대한 사상들이 나타났다가 곧 별 볼일 없이 움츠러들어 어도 피로워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자고 노래한다.

이 시에서 하디는 기원전 6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세상에 등장했던 주요 이론들을 거론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지구는 대단한 곳이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인간도 별 볼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증적,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다윈이나 하디, 모두 이중적으로 풍요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성장 혹은 죽음을 향할 수 있는 미래를 지닌 현재 생물의 풍부함과 현재의 기반을 형성하는 과거 생물의 쇠퇴하고 망각된 풍부함이라는 두 개의 풍요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채로움, 거기서 비롯된 풍요로움,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선택은 진화론에 내재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진화론을 수용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디의 시에 적용되는 원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윈은 생명 현상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겹쳐하게 기록했고, 하디는 그것을 참

된 삶의 철학으로 가는 길로 인도한다. 하디는 “있는 그대로의 느낌도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참된 삶의 철학으로 가는 길은 생명 현상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우연과 변화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겸허하게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Orel 39).

Ⅲ. 유기체론으로서의 변화와 성장

환경 적응에 유리한 부분을 보존한 개체가 살아남고, 이 과정에서 개체의 개별성, 다양성, 풍요로움이 연출된다는 진화론은 자연스레 변화의 개념을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계론이 아닌 생물유기체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리고 인과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과학은 인과 관계를 표현하는데 유기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므로, “생물학자는 개체의 발달, 진화, 기능의 영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Waddington 41). 그리하여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 선택의 매커니즘이 변화를 유발한다는 점”(161-62)에 주목한다. 개별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면, 명확한 특성을 가진 개체와 그 특성을 물려받은 후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환경은 통일적이거나 안정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으며 유기체들 사이와 물질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소산이다. 흔히 “개별 유기체는 동태적이고 환경은 정태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환경은 개체보다 다양한 욕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늘 같은 일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Beer 18). 언제나 불충분하게 마련인 의지와 노력으로 복잡한 생명의 에너지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겪는다. 모든 종은 사라지고 그들이 존재했다는 증거조차 없어진다.

하디는 「1967년」(“1967”)이라는 시에서 다윈의 이런 인식을 이렇게 인지한다: “백 년의 여름이 지나면! 모든 새로운 눈들, 새로운 마음들, 새로

운 방식들, 새로운 바보들, 새로운 현자들,/ 눈물 흘릴 새로운 비애들, 소중히 할 새로운 기쁨들”(1. 1-3), “그 생동하는 세기의 생생한 광경 속에서,/ 한, 두 줌의 유해(遺骸) 말고는/ 나와 그대의 남은 흔적은 아무 것도 없으리라”(2. 1-3). 인간의 흔적은 물론이고 생물 개체들이 모두 사라진, 측정할 수 없는 과거를 인식하는 태도는 다윈에게 나타나는 커다란 특성이고, 하디는 이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지질학적, 자연사적인 증거는 이미 존재하지는 않지만 진화 과정이 느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개별 유기체가 삶의 과정에서 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유기체는 진화 과정에 참여하지만, 진화 자체는 개별 유기체가 살아 있는 동안 일어나지 않고 세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Darwin 453)이다. 하디는 이런 개념을 「유전」(“Heredity”)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 늙어서 죽어도 ‘나’라는 인물은 후대의 가족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한다.

나는 가족의 얼굴 속에 있다,
살은 사라지지만, 나는 계속해서 산다,
흐르는 세월을 통해 다가올 세월까지,
망각을 넘어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뛰면서,
특징과 흔적을 비추면서. (1. 1-6)

얼굴 윤곽과 목소리와 눈으로,
세월을 거둬하며 물려받는 생김새는,
인간의 제한된 수명을
무시한다—그것이 바로 나다,
죽으라는 부름에 개의치 않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존재다. (2. 1-6)

이 시에서 하디가 말하듯, “가족의 얼굴” 속에는 유전인자(gene)가 들어 있어 세대로 가면서 전수되기 때문에 “가족의 얼굴”은 죽음을 이겨내며 개체의 삶이 아니라 종족의 삶을 보여준다. 비어 또한 『다윈의 플롯』(Darwin's Plots)의 제2판의 서문에서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개체의 수명은 매우 짧다. 자손이 생산되면 개체는 생물학적으로 끝난다. 하지만 개체들은 각 유기체나 사람에게 내장된 사소한 변이를 통해 진화적 변화를 담당한다. 이런 이중적인 우연성에 반응한 작가로 하디를 꼽을 수 있다”고 말한다(Introduction XX). 비어가 지적하듯, 하디는 액면 그대로의 생물학적 진화를 자신의 시를 통해 표현하기도 하지만, 인간사의 경우 그것은 ‘문화적 기억’이라는 또 다른 진화 형태를 거쳐 일어난다는 것도 보여준다. 하디는 자신의 많은 시를 통해 “망각의 세계로부터 일어나는 기억들, 현존하는 사물에 남겨진 죽은 자의 흔적, 조상, 유전, 기념비 같은 것에 주목”하면서 죽은 자들을 “추억과 회상에 의해 살아있는 존재로 귀환”시키는 동시에 이를 “사후의 불멸성과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윤명옥 91). 그런데 이런 하디의 사고의 배후에는 개인을 부가시키는 관념의 근저에는 그 되풀이되는 에너지가 개인보다 호흡이 더 긴 종족의 욕구를 위해 봉사하며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종족의 소멸에 저항하기 위한 번식 에너지가 된다는 진화론적 역설이 숨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윈주의는 결코 단편적인 것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볼 때 한 시대에 대해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변화는 흐름과 재편성을 의미한다. 형태들은 고정되고 완성된 종이 아니라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주와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대륙들은 모이고 흩어지며, 세상과 그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생물체는 끊임없이 운동한다. 비어도 주목하듯, 생장과 변화에 대하여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과거의 스케치」(A Sketch of the Past)에서, “과거의 스케치 그 그림에는 운동과 변화의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 늘 한결같이 안정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왔다가 가버리고, 커졌다가 작아지게 되기

마련이다. 이런 변화는 하찮은 생물에게 각기 다른 속도로 일어난다.... 무엇이 어떻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 달라져버린다”고 설명한다(79).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과 운동이 필요하다. 성장과 과정, 운동과 변화는 유기체에게 필수적인 경험이고, 시간의 흐름은 유기체의 구성 요소이다. 유기체론은 자연 과정과 사회 과정의 동등함, 전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의 유기적인 상호의존성, 전체와 부분의 상호의존성을 내세운다. 그것은 곧 상호 관계의 네트워크이다. 모든 시간과 공간에 속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매우 근사한 사실이지만 너무나 낮익어서 간과하기 쉬운 경이인데, 하디의 시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물’이나 ‘직물’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우주는 여러 가닥으로 섞여 짜인 거대한 조직망이며 그 속에 존재하는 거주자들은 복잡 미묘한 관계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유기체론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 세계를 흐르는 것으로, 끝없는 전진 과정으로 이해하면, 인간도 멈출 수 없는 운동과 변형 속에 존재하는 미미한 요소에 불과하다는 쓰라린 인지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운동과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간’과 ‘세월’은 하디의 시에서 “행진하며 다가와”(「깨진 약속」[“A Broken Appointment”] 1. 2) 성장을 촉진하고 폐허와 죽음으로 몰아가며 곧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는 「비바람 몰아치는 동안」(“During Wind and Rain”)에서도 매 연마다 “아, 어찌나, 오, 흐르는 세월을!”(1. 6; 2. 6; 3. 6; 4. 6)이라고 외치며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월을 한탄한다. 그리고 「아마벨」(“Amabel”)에서는 한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젊은 아마벨을 “보기 흉하게 망가뜨린 시간”(Langbaum 59)을 탓하며 ‘시간’을 폭군으로 그린다: “-나는 어딘가 집 꼭대기라도/ 기어 올라가, 울고 싶었다네,/ ‘시간’이라는 폭군이/ 아마벨을 지배해버렸기에!”(6. 1-4). 아무리 끈질기게 존속해 온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의 변형이나 소실은 하디에게도 다윈만큼이나 특별히 예리한 물질성의 느낌을 준다. 그의 유물론

은 다원처럼 배타적이거나 순전히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형태와 생명의 세계에 대한 감각에 근거한 반응이고, 개별적인 사례에서 느끼는 기쁨과 그것을 진화적인 시간의 차원에서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감각 사이의 긴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사상의 내용을 문체의 기교로 표현해 내는 데 있어 하디는 절박함과 목직함의 까다로운 조합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질박한 옹기 같은 하디 시의 독특한 문체를 발족시킨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분명히 생물체에게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한다. 사물은 변화하려는 욕구를 통해 자신의 완성된 형태를 끊임없이 찾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시간의 흐름은 이 거대한 우주에서 끊임없이 흐르며 긍정성과 부정성 모두를 초래시키는 존재일 뿐이다. 그리하여 하디는 「해 뜰 무렵의 삶과 죽음」(“Life and Death at Sunrise”)에서 누군가의 죽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탄생으로 이어짐을 관찰하며 삶과 죽음의 연계성을 인지한다. 이 시에서 잭(Jack)은 방금 태어난 남자 아이로, 그 이름은 죽은 노인, 존(John)의 이름을 변형한 것인데, 하디는 이렇게 이름을 교차시킴으로써 세상에 오고 가는 삶과 죽음의 교차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해 뜰 무렵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디가 이 시에서 인지한 진화론의 성장에 대한 관심과 변형의 개념은 19세기의 사유와 창조성에 내재하는 상상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그리고 변형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름이 거치는 변화 속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하디는 오비드(Ovid)가 일찍이 주목했듯이, “아무 것도 자체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것을 쇠신하는 자연은 끊임없이 형태를 갖고 형태를 만든다. 온 우주에서 소멸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단지 형태의 변화와 쇠신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탄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과거와 다른 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죽음은 예전 상태의 중단을 의미할 뿐이다. 어찌다가 사물이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이동할 때가 있으나 그럴 경우에도 사물의 총계는 불변한다”(252-58)는 사실을 총체적으로 포괄한다. 그리고

이로써 하디의 진화론적 사고는 새로운 형태의 신화를 구축하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한다. 이는 다윈의 진화론과 같은 것으로 그에 따르면, 창조적인 상상력은 성장 모델에 의한 자연 질서와 동등하다고 간주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승, 필연적인 연쇄, 변화와 변형 같은 개념들은 강렬한 정서적, 지적 힘을 갖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자연적인 형태와 유기체를 강조하는 다윈의 낭만적 유물론은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이 되며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함께 위안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윈의 글쓰기인 낭만적 유물론을 공유한 하디가 그의 시를 통해 일구어 내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하디는 죽음을 비관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죽음은 '시간'의 감방을 탈출하게 해주고 고통을 벗어나게 해준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우주, 혹은 지구에서 벌어지는 그저 사소한 사건에 속할 뿐이다. 그렇기에 그는 어머니 제미마 하디(Jemima Hardy)의 죽음을 다룬 「마지막 숨을 거둔 후」("After the Last Breath")에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아주 감미로운 어떤 것이 떠도는 것을 느낀다네./ 전에 없던 망연자실함이 주는 안도감이 있다네./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의 감방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네"(4. 1-4). 또한 하디가 자신이 죽은 후를 상상하고 쓴 시 「훗날」("Afterwards")에서도 죽음은 "해제의 종소리"(5. 1)로 표현되듯, 죽음은 이 세상에 사는 의무감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잠시 머무는 것으로 보면서, 삶은 죽음의 묵인 하에 있는 체류이자 집행유예인 것으로 인식한다. 이로써 하디는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하고 거칠고 차가워 보이는 진화론을 통해 세상과 인간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배후의 진실과 거대한 우주 안에 깃든 관계망을 대우주적으로 통찰하고자 한다. 다윈의 진화론이 새로운 신화를 함축하듯이, 그는 당대에 자신의 문학을 통해 에텐동물 대신 바다와 늪지가 배경이 되고 인간 대신 연체동물과 공허가 등장하는 새로운 신화적 드라마를 구축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IV. 반인간중심주의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는 인간이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하지 않는다. 다윈은 “인간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자연세계의 기나긴 변화와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고 한다(133). 그는 인간의 이성이 물질세계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윈은 인간을 늘 중심에 두는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면 인간의 경험을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지고 인간과 무관한 법칙을 정립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여러 가지 가능성의 범위도 제한되고 인간의 의식을 넘어서는 생명의 힘을 무시하는 결과를 빚는다고 보았다. 이로써 빅토리아 시대에 새로 등장한 진화론의 지식 체계는 인간을 의미의 중심에서 탈락시키고 인간을 인간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는 세계 속에 가져다 놓았다. 진화론에서 인간은 지구 생명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그 역사의 중심이 되지도 못한 것이다. 또한 인간은 어떤 패러다임도 아니고 지배자도 아니었다. 그 시대의 선구적인 과학자들이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식의 진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에게 우주론적, 생물학적,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이전에는 인간이 모든 관심과 설명의 중심이며 자연의 위계에서 맨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조지 허버트(George Herbert)가 「인간」(“Man”)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모든 것, / 혹은 그 이상이라네”(83)라고 노래했던 세계,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이 자연 질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인간중심적인 발상이 전복되었기 때문이다. 다윈은 일말의 여지도 없이 허버트나 밀턴(John Milton)이 내세운 이전 시대의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을 전복하며 보편적인 친족 관념과 신의 관념마저 뒤집으며 새로운 신화를 쓴다. 그는 친족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공포심을 일깨우고 미녀와 야수가 실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대에 공인된 기준으로부

터 일탈한 이런 진화론을 접한 빅토리아 시대의 보통 사람들이 심한 거부감을 느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다윈은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서 탈락시킨 대신, 다른 종, 다른 생명의 관점에서 자연의 모든 구성요소들과 그들의 질서를 바라본다. 그의 진화론은 “인간과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이 동등한 친족관계에 있다”(566)는 친족의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다. 다윈은 의식의 다양한 속성에 부합하는 가치의 상대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 덕분에 다윈은 인간 중심주의를 불신했지만 생물학에 의인화를 도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관과 조직, 그리고 인간이 배제된 자연 질서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조직 사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에게 다른 모든 생명 형태와의 친족 관계를 회복시켜주고자 했다. 그는 가족의 유대를 되찾고자 했고, 잃어버린 유전적 연결과 경건한 기억을 되살리려고 했으며, 계보학적인 연구를 추진했다.

이런 사고의 개념과 방식은 하디에게도 수용되어, 하디는 시를 통해 인간 중심의 서술뿐만 아니라 인간과 평등한 관계에 있는 식물, 동물, 사물을 주제로 하여 서술한다. 「변형」(“Transformations”)이라는 시에서 주목 나무와 인간을 성장과 친족의 개념에서 간접적으로 서로 비유한 하디는 「집안의 명사」(“A Popular Personage at Home”)에서는 제목에서부터 자신이 키우던 개, 웨섹스를 의인화시킬 뿐 아니라 높은 존재로 추대하며 시의 주제로 등장시켜 웨섹스의 입장에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는 진화론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말하게 한다: “이렇게 ‘웨섹스’가 말했다. 하지만 가끔/ 그의 확고한 눈빛 속에 의혹의 빛이 스치며/ 한 순간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것도 사라지겠지요, 나도 사라지겠지요?’”(6. 1-4). “주인과 노예의 이미지는 인간의 독선적인 자기 과시인 동시에 다른 종(種)들에 대한 특권 의식”(Beer 55)이라는 다윈의 관념을 전수받은 하디는 이전의 사고 관념에서 인간보다 하등 생물이라고 여겨졌던 동물이나 식물을 인간과 평등한 존재로 격상시킨다. 따라서 이들은 하디의 시에서

의인화되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런 점은 “당신” 혹은 “너”로 지칭되는 “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인간의 말 상대로 나오는 「아, 당신이 내 무덤을 파고 있나요?」(“Ah, Are You Digging on My Grave?”)에서도 나타나고, “그”(he)라는 죄수로 의인화된 “거미줄에 걸린 나뭇잎”이 관찰의 객체가 됨으로써 “운명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지”의 희생양이 되는 「10월의 마지막 주」(“Last Week in October”)를 통해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사물의 빈번한 의인화와 은유화는 하디 시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자신의 소설 『귀향』(*The Return of the Native*)에서 에그던 히스(Egdon Heath)라는 광대한 황야를 가리켜 “황야의 얼굴은 단지 그 안색 때문에 다른 곳의 밤보다 반 시간이나 더 길었다”(9)고 묘사하는 것처럼, 그는 시에서도 원시적인 인간성과 풍경을 실험적인 담론과 인상적인 담론 사이를 오가는 말로 인간화시키고 의미를 확장시켜 사용한다. 그가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은 유기체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유기체의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해소하는 힘이 된다. 또한 이는 재치와 아이러니와 역설을 동반하며 시각, 촉각, 청각 등의 복합적인 친화력을 통해 독자에게 적절하고 긴밀한 긴장감을 주기도 한다. 하디 시에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시인 자신을 시 텍스트에서 “관찰자나 여행자로 위치시키고 조건적으로 등장해서 다양한 간격으로 다채로운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보도록 한다”(Beer 73)는 점이다. 이것은 존재와 물질세계가 낙관이나 비관, 그 어느 관점으로 해석되더라도, 하디에게 관찰의 즐거움을 준다.

그런데 하디의 시에서 보이는 이런 특징들은 다윈의 사상과 언어가 이루어 낸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언어에 있어 다윈은 자신이 생각한 관념은 사회의 틀 밖에 있으므로 당대의 언어를 갖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유’의 방법으로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론을 ‘서술’했다. 그리고 과학적인 언어로 쓰이지 않고 이야기로 풀어서 쓰인 다윈의 언어는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많은 의미를 담게 되고 상상력의 보고가 될 수 있었다. 이는 비어(Beer)가 지적하듯,

“다윈은 우주에 대한 인간 중심 사상에 있어서는 밀턴을 전복했지만, 언어에 있어서는, 특히 그 세부적인 기교에 있어서는 밀턴의 언어를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32). 그는 “풍요로움, 밀도, 개별자의 형성, 개별자가 얼마나 생존하는지, 과거와의 공통성과 연속성을 얼마나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밀턴을 받아들였다. 밀턴은 다윈에게 심오한 상상력의 즐거움을 주었으며, 다윈은 그것을 언어에 대한 이해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32). 사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사상을 표현하는 언어에서도 다윈의 풍부한 상상력은 영속적인 세계의 풍부함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끊임없이 타진하고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사상적으로 선행하는 관념이나 그것에 부수되는 예정된 설계와 같은 발상을 거부했고, 그 때문에 세계의 다양한 물질성 안에 존재하는 조화에 큰 비중을 둘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조화와 평등의 원칙에 힘입어 다윈이 강조한 혈통은 계급에서 벗어나고 종족에서도 벗어난다. 그의 사유에는 유평파아적인 충동이 내재해 있어 공동체와 평등을 지향하고 위계적인 구성과 분리적인 구성을 공격하는 의미의 요소들을 늘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의 평준화 경향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런 친족 관계에 대한 강조는 ‘거주자’나 ‘존재자’ 같은 단어들의 지위를 더 평등하게 변화시키기도 했다. 이로써 다윈은 특별한 피조물을 거부함으로써 모든 생명을 높이 평가했고 서로 간에 깊이 공유한 공통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윈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고, 어떤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원도 거부했다.

V. 염세주의

그런데 다원주의가 인간을 자연 질서와 초자연 질서가 만들어낸 최고의 성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염세주의를 초래했다. 이 염세주의는 『종의 기원』에 전개되는 진화론이 인간 개인의 노력이나 선행에 관계없이 개인의 행복과 불행이 무엇인가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자에 의해 결정된

다고 하는 개념에 새로운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진화론은 자연도태, 적자생존설이 근간을 이루는데 그것은 돌연변이에 의해 일어난다. 우연히 일어난 이런 변화 때문에 어떤 존재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합하여 번창하게 되고 어떤 존재는 부적합하여 자손을 거치는 동안 도태된다. 자연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변이에 따라 생물의 소멸과 번영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이 이론은 하디의 결정론 혹은 운명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하디는 “인생을 3m, 즉 불행(misery), 재난(mishap), 불운(misadventure)이 가득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삶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대신에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인간의 처지를 그의 문학적 영역에 진솔하게 그려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안진수 10). 그래서 하디는 흔히 비관주의자, 염세주의자, 운명론자, 결정론자로 알려져 있다.

하디의 결정론 혹은 운명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않는데,⁶ 이것은 우주의 주도자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디가 만들어 낸 그 유명한 용어인 ‘내재 의지’(Immanent Will)에서 기인한다.⁷ 원래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에서 온 이 개념을 하디는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The Unborn”)이라는 시에서, “그러자 그들이 어중이떠중이 균중치

-
6. 결정론과 운명론은 논의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디의 경우 둘 사이를 오가며 비슷한 개념으로 활용한다. 그린(William Chase Greene)은 “결정론의 핵심은 인간이 완전히 외부적인 운명(destiny)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8), 엘리엇(Albert Pettigrew Elliott)은 결정론을 “운명론의 과학적 필적물”로 보면서 “결정론을 운명론을 좀 더 만족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건” 같은 것으로 보았다(31). 그리고 코트니(W. L. Courtney)는 운명론을 “인간을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신보다도 우월하고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영원한 모든 것으로부터 존재하는 비인격적이고 원시적인 거대한 힘”으로 보았다(217). 하지만 결정론이나 운명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7. ‘내재 의지’의 개념이 된 ‘의지’의 개념은 원래 생의 철학의 시조이며 염세관의 대표자인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와 ‘무의식의 철학자’라고 불린 독일의 형이상학적 철학자인 폰 하트만(Eduard von Hartman)의 이론 체계에서 기인했는데, 하디는 염세주의에 관한 이들의 저서들을 탐독했다.

림/ 앞으로 쫓기 듯 허둥지둥 나왔다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세상 속
 으로./ 만물에 내재하는 ‘의지’에 의해”(4. 1-6)라고 단적으로 말한다. 만물
 에 내재하는 의지는 숙명의 의지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우주
 의 질서이며, “우주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근본적이고 본원적인 힘”
 (Minakawa and Yoshikawa 295)을 말한다. 이것은 모든 물체를 창조하
 고 지배하는 거대한 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모든 창조물 속으로
 맹목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하기 힘든 우주적인 어
 떤 힘이다. 이 힘은 우주의 공간과 시간까지도 지배한다. 하디는 자신의 이
 런 관념을 많은 시들을 통해 조명한다. 우선, 그는 세상사가 우리 인간 혹
 은 만물의 욕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는 다른 섭리 같은 것
 이 있어 그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지위가 낮은 이들」(“The
 Subalterns”)이라는 시를 통해 이렇게 묘사한다: “가엾은 방랑자여, 낡빛
 하늘이 말했네,/ 내가 그대를 밝게 비춰 주면 좋으련만,/ 하지만 저 높은
 곳에서 시행되는 법규가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네”(1. 1-4). 그리
 고 「자연의 질문」(“Nature’s Questioning”)이라는 시를 통해, ‘의지’를 시행
 하는 절대자가 스스로의 입을 통해 자신을 “거대한 바보”, “자동기계”, “섭
 리”로 지칭하며 자신이 행하는 힘이 어떤 법칙이나 인과 관계없이 무작위
 로 발휘되며 자신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히도록 한다. 이
 시에서 하디는 “사물이 스스로 의도한 대로 되지 못하는 상태”(F. Hardy
 163)를 묘사하며 의도했던 완성에 대한 갈증을 많이 드러내지만, 이것은
 미완성이나 어긋남으로 인한 혼란을 통해 극대화시킨다. 이 시에서 낯설
 과 씨실처럼 교차적으로 오가는 완성과 파괴, 부드러움과 거침의 언어는
 「새해 전야」(“New Year’s Eve”)에서도 펼쳐지지만, 이 시에서는 좀 더 딱
 딱하고 직설적인 어투로 하늘에 계시는 위대한 설계자인 신의 플롯(plot)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토로한다: “그러자 신이 말했다네, ‘나의 작업
 은-논리가 없다-/ 그대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설명하지 못
 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빗었을 뿐’”(4. 1-5).

그런데 하디에게 있어 ‘내재 의지’는 모든 물체를 창조하고 움직이는 힘이며 ‘의지’는 어떤 심리적인 힘이나 무의식, 또는 무의식적인 마음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이런 무의식은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운동하는 과정에 있는 창조적이고 충동적인 우주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며 활동한다. 이는 「둘의 합일」(“The Convergence of the Twain”)을 통해, 배를 만들 당시에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말하자면 “자연에 대한 도전으로 인간에 의해 창조된 거대한 존재”(Atwood 58)인 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태닉 호가 “세월”의 “실을 짓는 자”의 농간으로 인해 대서양을 횡단하는 첫 항해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1912년 4월 15일 두 동강이 나면서 침몰한 사건이 시각적으로 선명한 풍경과 함께 묘사된다. 하디는 이 시에서 “그녀”로 의인화된 ‘타이태닉 호’와 ‘그리는 잠재성이 암시되는 ‘빙산’이 만나 부딪쳐 두 동강이 난 채 분열하는 비극을 ‘내재 의지’의 주재로 이루어진 둘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운명론으로 다루고 있다.

아, 모든 것을 움직이고 추진하는

‘내재 의지가 물살을 가르는

날개가 달린 이 물건을 만들면서, (6. 1-3)

불길한 일을 그 짝꿍으로 준비했던 것,

그녀를 위해-그토록 화려하고 거대한 그녀를 위해-

얼음의 형상을 준비했던 것, 먼 분열의 시간을 위해. (7. 1-3)

.....

마침내 ‘세월’의 ‘실을 짓는 자’가 선포하기를

“지금이다!”라고 말하자, 각자 이 말을 듣고,

절정의 순간이 오고, 두개의 반구가 부딪힐 때까지는. (11. 1-3)

하디는 ‘내재 의지’를 다양한 운명의 일화, 재난, 혹은 아이러니한 우연으로 조명한다. 하디의 ‘내재 의지’는 쇼펜하우어의 내재 의지를 넘어 다윈의 진화론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와 우주론에 반감을 갖고 있던 다윈을 그대로 수용한 하디는 자연 선택과 적응은 선행하는 설계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유기체와 매체의 욕구가 일치하는 것은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는 다윈의 이론에 전거하여 ‘내재 의지’의 우연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하디의 즉각적인 반응은 「우연」(“Hap”)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만일 어떤 복수하는 신이 하늘 위에서
 “그대 고통 받는 존재여, 그대의 슬픔은 나의 환희요,
 그대의 사랑의 상실은 나의 증오의 이득임을 알아라!”
 이렇게 내게 외치며 웃는다면, (1. 1-4)

그러면, 나는 부당한 그 분노의 감정에 오히려 강철처럼 되어
 그것을 참고, 이를 악물고, 죽으리라,
 나보다 더 힘센 어떤 ‘권세가’가 그의 뜻으로
 눈물을 쏟도록 내게 할당을 주었다고 반쯤은 위안 삼으며. (2. 1-4)

그러나 그렇지 않다. 기쁨은 어찌하여 살해되어 쓰러지고,
 최고의 희망은 왜 씨가 뿌려진 후에도 꽃필 줄을 모르는가?
 - ‘지독한 우연’의 손이 해와 비를 막고,
 주사위를 던지는 ‘시간’이 재미삼아 신음을 던지네...
 반쯤 장님인 이 ‘운명의 판관’들이 내 순례 길에
 고통만큼 축복도 쾌히 흘뿌려 놓았네. (3. 1-6)

이 시에서 보듯이, 인간의 유한한 능력과 우주의 무한한 시간과 공간 사

이의 절대적인 간극은 하디의 시에서 근심과 실망을 전가시키면서 역기능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진화론에서 연유된 무신론 혹은 이신론은 그로 하여금 이제 날마다 줄어들고 있고 점철된 삶을 사는 인간에 대한 불평을 일삼게 하는 듯 싶다. 하지만 “전통주의자가 아닌 하디는 인간 본성에 진실하고”(Pinion 21),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냉정하고 엄격하다고 할 만한 그의 진화론적인 통찰은 그로 하여금 세상과 인간과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한다. 그 결과, 인간은 거창하지도 않고 왜소하지도 않으며, 우주의 모든 생물체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그저 그런 표준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바로 이런 관점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다. 이것은 곧 비어가 지적한 하디의 “인간을 위한 척도를 찾는 문체”(233)와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는 86번째 생일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쓴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He Never Expected Much”)에서 일견 사디스트(sadist) 같아 보이기도 하는 절대자의 현명한 경고로 인해 자신의 삶을 적절하게 꾸려올 수 있었음을 말한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기약하지는 못한다./ 애야, 너무 많은 것을 기약하지는 못해./ 그저 중간 색조의 우연 같은 정도지./ 그대는 나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지./ 그대의 신용을 지키는 현명한 경고였지!/ 그 경고를 받아들인 덕택에 나는/ 해마다 할당되는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었지”(3. 1-8).

하지만 이런 인지를 끝낸 하디는 놀랍게도 삶을 좀 더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인다. 삶의 객관적인 실체를 알았기에 그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삶을 대할 수 있고, 삶은 삶 나름의 행로가 있으니,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여기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즐기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하여 그는 「삶은 웃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네」(“Life Laughs Onward”)를 통해 “삶은 굴복하지 않은 채 웃으면서 앞으로 나아갔네”(4. 1)라고 노래하고, 「즐거이」(“Let Me Enjoy”)를 통해 “난 이 지상을 한껏 즐기리./ 지상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절대자가/ 나의 기쁨이 아닌 다른 의도를 가졌더라도”(1. 1-4)라고 노래한다. 그러므로 하

디의 시는 걱정과 불안, 불가피한 전복과 함께 오랫동안 예측되어 왔으면서도 끊임없이 회피되어 온 것 같은 행복의 감각, 어두운 과거와 초반에 결정이 나고 말 것 같은 예정된 감각과 더불어 기쁨을 향한 욕구가 있다. 그는 1883년 『롱맨 잡지』(Longman's Magazine)에 발표한 「도셋셔의 노동자」("The Dorsetshire Labourer")에서 '즐기려는 의지'에 대해, "즐기려는 의지, 우리는 이것을 나뭇잎 하나에서부터 무도회의 귀부인에 이르기까지 자연 전체에서 발견한다.... 고인 물처럼 그것은 어딘가에서 새어나갈 가능성의 틈을 발견한다"(F. Hardy 279)고 말한다. 이는 자연 세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존하는 생명체는 생명과 더불어 만족감을 누리려고 한다는 인지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연」("Hap")이라는 시의 말미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쯤 장님이 이 '운명의 판관'들이 내 순례 길에/ 고통만큼 축복도 꽤히 흠뻑려 놓았네"라는 어구가 말해주듯, 하디는 이 세상의 삶에서 결코 완전히 슬프고 허무한 '내재 의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비 되어 있을 듯한 기쁨의 '내재 의지'도 보고 있다. 그것은 '행복을 향한 욕망', 곧 희망이다.

이런 점은 하디의 염세적이고 우수에 찬 사실을 토로하는 다른 시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암울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시의 말미에 이르러 그는 희미하게 기쁨에 대한 기대를 살짝 스케치해 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스름 속의 개똥지빠귀 새」("The Darkling Thrush")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 "멀리 혹은 가까이, 주위를 둘러보아도/ 땅에 있는 어떤 사물들에도/ 그렇게 황홀한 소리로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가 쓰여 있지 않았는데,/ 그 새의 행복한 저녁 인사 노래 속에/ 그는 알고/ 나는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축복의 '희망'이/ 떨려오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4. 1-8). 비판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만 행복에 대한 희망을 품고 끝이 나는 하디의 시는 "어떤 축복의 희망"이 있기에 '행복을 향한 욕망'을 갖는 것이다. 다윈은 생명체의 행복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하디가 말하는 '행복을 향한 욕망'을 인정하지만, 개별 유기체가 언제나 고통

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순탄한 질서라는 관념을 거부했다. 하지만 하디는 거꾸로 개별 유기체인 인간이 고통이 따르는 인생길을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행복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또한 하디는 이전에 흔히 시에서 노래되던 낭만적인 나이팅게일 새나 쾌활한 종달새가 아니라 아무런 비전이 없으며 독자에게 깊은 인상도 심어주지 못하는 아주 흔한 개똥지빠귀 새를 선택함으로써 그 새를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추대하고 있는데, 이는 다윈주의가 시대의 변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디 또한 빅토리아기의 시에서 20세기의 시로 넘어가는 변혁을 이루고 있음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다윈주의가 반인간중심주의를 통해 인간이 아닌 동물, 식물, 미생물의 위치를 인간과 대등한 위치로 격상시키는 변혁을 일으킨 것처럼, 하디는 미미한 존재이던 개똥지빠귀 새를 고귀한 비전의 새인 나이팅게일 새나 종달새의 위치로 대등하게 격상시키는 변혁을 일으킨 것이다. 이는 곧 20세기의 시가 이전과 다르게 좀 더 평범하고 미미한 존재를 부각시키는 매개체가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Ⅵ. 나가며: 다윈주의의 인도주의적 수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디는 시가 단지 전통적으로 정신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심리라든가 하는 인간 삶의 양상들을 나타내는 매체라면, 겉으로 보기에는 “순전히 물질적인 우주”(Holmes 260)를 논하는 것 같은 진화론은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답하여 다윈주의와 어우러져 논의될 수 있는 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시 작품에 주로 나타나는 다양성의 개념, 유기체론의 성장과 변화, 반인간중심의 세계관, 염세주의와 우연성, 풍요롭고 은유적인 언어적 특성 등은 다윈주의의 주요 원론과 맞물려 기묘하면서도 경이롭게 작용함으로써 그만의 독특한 시 세계를 형성해 준다. 그의 시에 표출된 다채로운 주제와 은유적이면서도 풍요로운 문체와 독특한 시적 기교는 다윈주의적 다양성과

연결되고, 시간에 대한 관념과 그물이나 직물의 이미지 창출과 유기체론적인 창조적 상상력은 유기체론의 성장변화의 개념과 연결된다. 또한 우주 만물을 대등한 위치에 두는 평등사상에서 비롯된 언어의 평준화와 그로 인한 의인화 기법은 그의 반인간중심주의 우주관과 시적 기교적으로 연계되며, 그의 시 세계가 빚어내는 염세주의와 우연의 관념 역시 그의 반인간중심주의 우주관과 사상적으로 연계된다. 더욱이 실망과 희망, 부드러움과 거칠음이 교차하는 그의 언어와 사상은 각기 작은 범주로서의 개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는 다시 더욱 커다란 범주로서의 대우주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네트워크 속의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로써 하디의 시에 대한 다원주의적 접근은 하디의 시 전체를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하나의 틀이 되어 시의 주제와 언어와 구조를 견고하면서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그물망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디의 시가 단순히 진화론에 수동적인 반응만 하지 않고 진화론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의 시가 전통적인 시의 특성을 넘어 현대시로 발돋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원주의가 “진화론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형태”(Rogers 486)로 제공되는 다원주의적인 세계에만 머물지 않고 시 시계 속에서 펼쳐지면서 과학적, 문화적인 개념을 가진 다원주의가 문학적으로도 진실한 가치를 획득하며 탈경계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윈이 인간에게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대대로 전수되는 생명의 나무 같은 오래된 신화를 이용해 인간에게 연속성과 전체성을 되찾아주려 했던 것처럼, 하디는 다원주의를 수용한 대우주적인 시야를 통해 대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찾고 인간에게 진화적인 영속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디의 시 작품은 곧잘 염세적인 비극이나 적의에 불타기도 한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일개 개인은 개체의 삶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거대한 절대자의 무작위적인 행동으로 인해 고통이나 죽음 같은 불가피한 재난을 만나 내팽개쳐지기도 한다. 다윈의 자연 선택의 이미지 속

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 불완전한 개별 유기체는 행복한 삶에 이끌리지만 변화의 축적을 통한 발달 과정은 필요와 적응의 완벽한 조화를 보장하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윈주의를 수용한 하디의 시 창작 원리의 기저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향한 열의와 객관적인 성찰에 대한 지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하디로 하여금 지구와 우주와 인간을 제대로 관찰하고 파악하되 이를 밑바탕으로 삶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우주적인 통찰력으로 현재 이곳 지상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려는 근원적인 꿈을 실행시키도록 한다.

그러므로 하디는 염세적이고 우울한 인간의 현실을 드러내는 시 작품의 말미에 일말의 희망이나 기쁨 같은 것을 언급한다. 그는 물질생활에서 얻는 다양한 기쁨과 이야기와 이론에서 강조되는 특수성, 개체성과 충만함에 대한 열정에 다윈에게 공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세계에 있어서 진정한 주체로서 타자에 대한 존재 즉 인간이 생겨난 과정과 필요성을 밝혀내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의 의문에 빛을 던졌던”(정용재 239) 다윈보다 좀 더 열렬하게 행복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 이는 하디의 염세주의적인 접근 방식의 기저에 세상과 인간의 진실을 탐구해보고 그를 바탕으로 현명한 삶을 영위해보고자 하는 인도주의적인 사고가 밑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디의 염세주의는 인간의 진실을 탐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간애에서 비롯된 그의 창작열이자 그가 이룩한 독특한 기법으로, 오히려 그가 인생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고무시킨 셈이 된다. 그렇기에 하디는 인간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의 일시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쁨과 행복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었다. 말하자면 하디는 최종적으로 다윈주의를 인도주의적으로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하디의 다윈주의의 수용, 그 기저에는 인간을 떠나서 인간을 묘사하지 못하는 시인의 창의적인 필수 원론과 시의 힘을 강화시키는 통찰력과 경이가 숨어 있었던 셈이다.

Works Cited

- An, Jin-Su [안진수]. *Thomas Hardy Yeongu* [Study on Thomas Hardy, 토머스 하야디 연구]. Seoul [서울]: Cheongdonggeoul [청동거울], 2003. Print.
- Atwood, Margaret. *Survival*. Toronto: McClelland, 1996. Print.
- Bailey, J. O. *The Poetry of Thomas Hardy*.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970. Print.
- Beer, Gillian. *Darwin's Plot: Evolutionary Narrative in Darwin, George Eliot and Nineteenth-Century Fiction*. London: Cambridge UP, 2009. Print.
- Courtney, W. L. "Fate and the Tragic Sense."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iterature*. 2nd ser. 28 (1878): N. pag. Web.
- Darwin, Charles. *The Origin of Species*. London: Edinburgh Press, 1906. Print.
- Elliott, Albert Pettigrew. *Fatalism in the Works of Thomas Hardy*. Montana: Kessinger, 2008. Print.
- Greene, William Chase. *Moira, Fate, Good, and Evil in Greek Thought*. Massachusetts: Peter Smith, 1985. Print.
- Hardy, Florence Emily. *The Early Life of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28. Print.
- Hardy, Thomas. *Thomas Hardy: The Complete Poems*. Ed. James Gibson.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2. Print.
- _____. *The Return of the Native*. Oxford: Oxford UP, 2009. Print.
- Herbert, George. *The Complete English Poems by George Herbert*. London: Penguin, 1991. Print.
- Holmes, John. *Darwin's Bards: British and American Poetry in the Age of Evolution*. Edinburgh: Edinburgh UP, 2009. Print.
- Jeong, Yong-Jae [정용재]. *Charles Darwin: Ingan Darwingwa Darwinism* [Charles Darwin: Human Darwin and Darwinism, 찰스 다윈. 인간 다윈과 다윈니즘]. Seoul [서울]: Mineumsa [민음사], 1988. Print.
- Langbaum, Robert. *Thomas Hardy in Our Time*. London: St. Martin's, 1995. Print.
- Minakawa, Saburo, and Michio Yoshikawa, eds. *A Thomas Hardy Dictionary*. Tokyo: Thomas Hardy Society of Japan, 1984. Print.
- Orel, Harold, ed. *Thomas Hardy's Personal Writings*. Kansas: U of Kansas P, 1969. Print.

- Ovid. *Metamorphoses*. Vol 2. Trans. Frank Justus Miller. Massachusetts: Harvard UP, 1916. Print.
- Pinion, F. B. *Thomas Hardy: Art and Thought*. London: Macmillan, 1977. Print.
- Pound, Ezra. *The Letters of Ezra Pound, 1907-1941*. Ed. D. D. Paige. New York: Harcourt, 1950. Print.
- Rogers, Janine. "John Holmes. Darwin's Bards: British and American Poetry in the Age of Evolution." *Review of English Studies* 61.250 (2010): 486-88. Print.
- Waddington, C. H. *Aspects of Form*. Ed. Lancelot Law Whyte. London: Lund Humphries, 1968. Print.
- Weber, Carl J. *Hardy of Wessex: His Life and Literary Career*. New York: Columbia UP, 1967. Print.
- Woolf, Virginia. *Moments of Being*. Ed. Jeanne Schulkind. London: Mariner, 1976. Print.
- Yoon, Myung-Ok [윤명옥]. "Gieokui Nuneul Tonghan Jukeum Sokui Hyeonjon: Thomas Hardyui Si [Life in Death through Memory's Eye: Thomas Hardy's Poetry, 기억의 눈을 통한 죽음 속의 현존: 토머스 하디의 시]." *Inmunhak Yeongu* [Humanities, 인문학연구] 17 (2012): 89-138. Print.

Abstract

Darwinism and Thomas Hardy's Poetry: Centering on Variabilities, Growth, and Change as an Organic Form, and Anti-Anthropocentric View of the Universe

Myung-Ok YO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Darwin's *The Origin of Species* evoked the most dramatic controversies in religion, politics, society, and thought by exploding the existing concepts in the Victorian age. And the poet and novelist of the era, Thomas Hardy, who was among the earliest acclaimers of *The Origin of Species* accepted Darwinism in his literature. He made the convergence of literature and science, or literature and culture. Especially through these fusions in his poetry, he showed the possibilities of new poetry by overturning traditional ideas and old poetic techniques. He also showed the new roles of poetry that it could harmonize with scientific Darwinism. As the results of these, the concepts of variability, growth, and change as an organic form, the anti-anthropocentric view of the universe, pessimism, hap, and rich figurative words in his poetry interlocked smoothly with the same main theories of Darwinism. They played roles in wonder, which made the world of Hardy's poetry unique and rich. It means that Hardy's poetry shows the active acceptance of Darwinism and develops into modern poetry beyond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Victorian poetry. Hardy also tried to find the location of humans in the order of Nature and give evolutionary permanence to humans through the acceptance of Darwinism. Behind Hardy's Darwinism, therefore, are hidden his passion on the deep understanding for humans and intelligence on objective introspection for humans. This is Hardy's humanitarian acceptance of Darwinism, which enforces his creative power of poetry as a vehicle for insight and wonder.

Keywords: Darwinism, variabilities, transformations, anti-anthropocentric view, Hardy's pessimism

Myung-Ok YOON is Visiting Professor of English in the Institute of General Education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She specializes in the 19th-century British and American poetry, but has also worked in various other areas, including the locality or urban humanities of American and Canadian literature. She has published *The Aesthetics of Paradox, Coexistence, and Juxtaposition: The Reading of John Keats' Poetry* (Darae, 2003) and more than 45 papers including "John Keats and the Politics of Language" (*Humanities* 32.1, 2013) and "Christina Rossetti: The Poetry of Strategy" (*Humanities* 99, 2013).

ymo98@hanmail.net

Received: 11 April 2014 Reviewed: 6 May 2014 Accepted: 28 June 2014
